

서울시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공간적 분절구조를 중심으로 -

이병훈** · 윤정향***

A Study on Local Labor Markets of Seoul Metropolis*

- Focusing on Spatial Segmentation -

Byoung-Hoon Lee** · Jeong-Hyang Yoon***

요약 : 이 연구는 제1회 서울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판독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서울시 취업자들의 통근 패턴은 대체로 노동력 자급비율의 대도시 70% 기준을 적용하면 하나의 통합된 광역 노동시장으로 나타나지만, 50~60%의 자급기준을 적용하면 4개 하위 통근권역이 존재한다. 특히, 강남구·중구·종로구의 경제활동 중심지를 둘러싼 광범위한 통근권역이 서울시 노동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노원·강북·도봉구의 3개 자치구는 전체 취업자 및 하위 집단들에서 단일한 폐쇄적인 하위 통근권을 구성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취업자의 특성별로 통근권 구획을 산출한 결과, 성별·고용형태·학력·직종에 따라 공간적 이동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확인된다. 회귀분석 결과 인적자본과 사회경제적 지위, 고용형태가 취업자들의 통근범위와 노동시장의 공간적 구획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이다. 결론적으로 지역공간이 노동시장 분절의 핵심 구획선으로서 중요한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서울, 지역 노동시장, 통근권, 자급비율, 공간적 분절성

ABSTRACT : This study explores the structural features of local labor markets in Seoul Metropolis, by using the 1st Seoul Welfare Panel Survey data. Seoul is a single integrated commuting zone, in case that the self-containment rate of 70% is applied. However, Our analysis, applying self-containment of 50~60%, reveals that it is comprised of four local labor markets. The largest commuting zone, whose center of economic activities is Gangnam-Jung-Jongno districts, consists of 13 administrative districts in Seoul. The second largest zone, whose center is Yeongdeungpo-gu, is comprised of seven districts. The two minor commuting zones are the Nowon-Gangbuk-Dobong area and the Seongbuk-Seodaemun area. Our study also identifies that the commuting zones vary in accordance with key attributes of work force. Multi-nominal logit regression analysis affirms that the spatial commuting zone of workers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ir human capital, socio-economic status, and employment type, thereby implying that the differentiated commuting patterns of workers shed light on the spatial dimension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Key Words : seoul metropolis, local labor market, travel-to-work area, self-containment rate, spatial segmentation

* 이 논문은 제1회 서울 복지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입니다. 토론자 김혜원 박사(한국노동연구원)에게 감사드립니다.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rofessor,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
교신저자(E-mail: bhlee@cau.ac.kr, Tel: 02-820-5117)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I. 머리말

최근 수년 동안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 관심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고용 없는 성장의 국면에 접어들어 일자리 문제를 중차대한 현안으로 직면하게 되면서 현실 노동시장에서 구직자와 일자리의 매칭(matching)이 지역 공간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부의 고용대책이 실제 지자체 수준에서 집행된다는 점에서 지역 노동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상품·요소시장의 지역 간 거래와 교류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 국내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 성장에 의해 일자리 기회와 고용 질의 지역 간 격차가 적잖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노동시장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실증 분석이 축적되어 왔다.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크게 두 개 흐름으로 대별할 수 있는 바, 전국 수준에서 광역시도의 고용구조를 비교·검토하는 연구와 특정 광역시의 고용실태를 진단하는 연구로 집약된다. 전자의 광역시도 비교연구로는 정인수 외(2003)를 비롯하여 전병유(2006)와 최창곤(2006) 그리고 김혜원(2007)이 지역 간 고용성과(예: 실업률 및 실업 탈출률, 고용률 및 취업 이탈률, 임금수준 등)의 차이를 규명하고 그 격차의 배경원인을 논증하고 있다. 후자의 연구로는 김종한(2006), 이효수·남병탁(2006), 홍성우(2008)가 각각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지역의 열악한 고용실태를 상세하

게 분석하고 있으며, 전병유·이인재(2006)는 전 북지역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이중구조의 실체를 규명하고 있기도 한다. 그 동안의 지역 노동시장 연구가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의존하는 분석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행정구역과 그 경계를 달리하는 노동시장의 공간적 구획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박진희(2005)와 이상호(2008a, 2008b)는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주되게 지역 노동시장의 경계를 가늠하기 위해 적용하는 통근권(travel-to-work area, TTWA)의 기준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수준에서 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구성 현황을 밝혀냄으로써 지역 노동시장의 실체를 심층적으로 판독하는 연구의 진전을 보이기도 하였다.¹⁾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행정수도이자 정치·경제·사회문화 중심지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표 1>에서 보여주듯이, 서울시에는 지난 20년 동안 그 비중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현재 전체 경제활동 인구 및 취업자의 약 1/5이 속해 있으며, 지역 총생산 역시 전국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경제활동에서 뿐 아니라 고용규모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서울시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서울시의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이러한 연구공백은 주되게 서울시 자치구의 고용현황에 대한 관련 실태조사 자료의 부재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1차 『서울 복지패널 조사(Seoul Welfare Panel Survey, SWPS)』²⁾의 고용관련 설문자료

- 1) 지역 내 통근율(self-containment)의 기준에 의거하여 전국 시도군의 기초단체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절차에 따라 박진희(2005)와 이상호(2008a)는 각각 2000년과 2005년의 인구주택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137개와 122개의 지역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2) 서울 복지패널 조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3,665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7,761가구를 대상으로 2009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재단이 지역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변화를 파악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지역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표본 추출틀은 '2005 인구주택 총조사'의 90% 표본 조사구이며 층화2단집단 추출법을 이용하여 1차 추출단위는 표본 조사구, 2차 추출단위는 가구에서 추출하되, 분류지표로 아파트·일반 조사구 여부, 1인 가구비율, 성비, 평균연령, 유배우자 비율, 고졸 이상 학력자 비율 등을 사용하였다.

〈표 1〉 서울시의 고용 및 지역총생산 비중

	1990		2000		2009	
	전국	서울시	전국	서울시	전국	서울시
경제활동인구(천명)	18,539	4,607(24.9)	22,069	4,904(22.2)	24,334	5,058(20.8)
취업자(천명)	18,085	4,424(24.5)	21,156	4,668(22.1)	23,506	4,835(20.6)
실업자(천명)	454	183(40.3)	913	236(25.8)	829	223(26.9)
경제활동 참가율	60.0	60.3	61.0	61.2	60.7	60.8
실업률(1주 기준)	2.4	4.0	4.1	4.8	3.4	4.4
고용률	58.6	57.9	58.5	58.2	58.6	58.1
지역 내 총생산(십억원)	332,274	88,926(26.8)	691,468	182,152 (26.3)	987,638	231,013 (22.2)*

주: 1.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KOSIS). * 2008년 자료

2. 괄호 안 숫자는 전국 대비 서울시 비중을 나타냄.

3. 지역 내 총생산에서 1990년은 2000년 기준가격, 2000년과 2008년은 2005년 기준가격으로 조정된 수치임.

를 활용하여 서울시 지역 노동시장의 실상을 밝혀 보기로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지역 노동시장의 공간적 경계를 판별함과 동시에 취업자 및 임금 노동자의 인적 특성에 따른 공간적 분절구조 차이 그리고 취업자·임금 노동자의 통근권(TTWA)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출하는 것을 분석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자 및 임금 노동자의 인적 속성이나 일자리 속성에 따라 통근권의 차이를 판별함으로써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공간적 특성을 밝혀내고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지역차원의 고용대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지역 노동시장의 판별기준과 공간적 분절구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SWPS자료의 가공·분석을 통해 서울시 지역 노동시장, 특히 자치구 수준의 고용실태와 통근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4장에서는 통근권을 기준삼아 서울시에 존재하는 지역 노

동시장들의 구획을 밝혀내고, 취업자 및 임금 노동자의 특성에 따른 그 구획 경계의 차이 여부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취업자·임금 노동자의 통근권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출하는 회귀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6장의 결론에서는 이번 연구의 요약과 향후 과제를 정리·제시한다.

II.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지역 노동시장(local labor market)은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으로 ‘노동자들의 구직활동과 사용자들의 구인활동이 집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지리적 공간단위’로 정의되고 있다(Casado-Diaz, 2000). 달리 얘기하면, 지역 노동시장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거주지를 변경함이 없이 일자리를 바꿀 수 있으며, 사용자들이 노동력을 채용할 수 있는 지리적 공간영역인 것이다(Fischer and Nijkamp, 1987; Goodman, 1970; Smart, 1974).³⁾ Martin(2003)은

3) Goodman(1970)과 Parr(2007)는 도시 지역 노동시장은 노동자들의 구직활동과 사용자들의 구인활동이 이뤄지는 중심 도시(central city)를 둘러싼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지역 노동시장을 사용자들의 채용공간(recruiting space)이자, 노동자들의 직업 탐색공간(job search space)으로 특징짓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Phelps Brown(1962)에 따르면 '유효한' 지역 노동시장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거지로부터 하루 이내의 통근거리 반경(a radius of a day's journey-to-work)에 포괄되는 지리적 공간(localities)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Goldner(1955)는 지역 노동시장이 노동자들의 거주지 이주를 배제하는 '노동의 지리적 비이동(geographical labor immobility)'을 전제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노동력의 상품화를 구현하는 자본주의 교환경제의 등장에 따른 역사적 산물인듯이, 지역 노동시장은 자본주의적 산업적 도시화(industrial urbanization)에서 비롯된 거주지와 일터의 공간 분리에 의해 노동자들의 통근활동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경제영역이다(Smart, 1974). 지역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배경에는 구직자의 입장에서 특정 지역 내 적절한 통근거리 이내에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직업탐색 비용이 저렴하고 필요 노동 시장정보 획득이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 그리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숙련의 노동력을 손쉽게 충원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최창곤, 2006; Hanson and Pratt, 1992). 지역 노동시장이 연구자들의 관심대상으로 부각된 배경에는 실업이나 빈곤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지리적 공간이자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하고 해결하려는 관

련 정책의 마련과 집행이 이뤄지는 행정구획으로 활용된다는 점(이원호, 2002), 사회불평등의 공간적 배열구조를 확인시켜주는 분석시각을 제공한다는 점(Clark, 1986; Peck, 1989), 그리고 주민들의 지방 자치공간이자 생활문화 공동체가 기반하는 사회적 토대라는 점(Smart, 1974) 등이 주되게 작용하였다.⁴⁾

지역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특정 시점에서 기꺼이 통근하여 일하려는 공간적 범위, 즉 노동자의 지리적 선호(worker's locational preferences)에 의해 경계의 구획이 결정된다(Goldner, 1955). Goldner(1955)는 지역 노동시장의 범위를 노동자들의 '적정' 선호구역(normal preference areas)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논의하였으며, 그 적정성을 '적절한 경제여건 하에서 적절한 직종의 일자리에서 적정 임금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Goodman(1970)은 지역 노동시장에 대해 노동자 선호구역으로뿐 아니라 사용자들이 일정 수준의 임금 제안으로 노동력을 충원하려는 구역범위(labor catchment areas of employers offering wages)를 추가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노동시장은 취업자들(임금 노동자와 비임금 노동자를 포함하는)의 거주지(residence area)와 업무지(work area)가 일치·포괄되는 노동력 수급의 공간적 완결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이상호, 2008a).⁵⁾ 이때, 지역 노동시장의 구획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특정지역 취업자들이 거주지와 업무지 사이에 일상적으로 이동하

4) Laan and Schalke(2001)는 도시의 지역 노동시장 또는 지역 노동공간(local labor areas)을 일상적 도시체계(daily urban systems), 기능적 도시지역(functional urban regions, FUR), 통근구역(travel-to-work areas), 표준 대도시구역(standard statistical areas, SMSA), 또는 대도시 경제 노동구역(metropolitan economic labor areas, MELA)을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본 단위(statistical building block)로 활용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5) Vance Jr.(1960)는 지역 노동시장의 구획범위와 관련하여 사업체들이 필요 노동력을 조달받는 노동 인구구역(labor shed)과 특정 거주지역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고용구역(employment field)을 구분하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업무지를 노동력의 합류구역(zones of conflux)으로, 거주지를 산개구역(zones of dispersion)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는 통근권(travel-to-work area, TTWA)을 측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Smart, 1974). 다시 말해, 지역 노동시장의 구획범위는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다수가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업무지로 통근하는 소위 노동력 수급의 '자급비율(self-containment rate, SCR)'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 맞추어 판별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지역적인 완결성 또는 노동력 자급자족의 폐쇄성을 나타내는 자급비율 SCR은 다음의 두 가지 지표로 기능하게 된다(Smart, 1974; Casado-Diaz, 2000; Laan and Schalkke, 2001; Parr, 2007).

- 노동수요 자급비율(labor demand or housing self-containment rate, HSC)

$$= (Er - Or) / [(Er - Or) + Ir] \times 100$$
- 노동공급 자급비율(labor supply or employment self-containment rate, ESC)

$$= [(Er - Or) / Er] \times 100$$

Er: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인구 수

Or: 특정 지역으로부터 외부로 유출되는 취업자 수

Ir: 외부로부터 특정 지역으로 유입되는 취업자 수

지역 노동시장의 경계구역은 노동력 수급의 자급비율을 기준 삼아 기존 행정구역의 취업인구 및 유출입 통근인구를 활용하여 그 구역들의 독자적인 완결구조를 판단하고 그에 못 미칠 경우에는 행정구역들 간의 취업인구 유출입 수준을 나타내는 통근강도(commuting intensity) 또는 연결비율(link ratio)⁶⁾을 산출하여 그 통합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절차를 반복하여 전국적 수준에서나 특정 광역지역단위에서 하위수준의 지역 노동시장의 실체를 가려낸다. 그동안 국내외의 연구를 통해 통상 취업인구의 유동성이 낮은 농촌 및 중

소도시의 경우에는 행정구역과 지역 노동시장의 경계가 일치하는 반면 대도시를 둘러싼 광역도시권의 경우에는 수 개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지역 노동시장의 구획이 확인되기도 한다(이상호, 2008b; 박진희, 2005; Casado-Diaz, 2000; Smart, 1974).

기존 연구들에서는 노동수급 자급비율을 주되게 기준 삼아 지역 노동시장의 경계구획을 판독해왔으며, 통근권(TTWA)에 의존하는 이러한 판별 기준은 Coombes et al.(1988)이 지적하듯이 주어진 시점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인구 및 유동인구의 특성 차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 취업자들 및 취업희망자들의 통근권은 해당 지역을 둘러싼 객관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취업(희망)자는 그 인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구역경계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거주지와 업무지의 객관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취업(희망)자들의 주관적인 손익계산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의 통근권 범위가 선택·결정되기 때문이다(Kerr, 1954; Goodman, 1970; Vance Jr., 1960). 예를 들어 노동력 수요의 변동을 초래하는 지역경기 변동과 산업구조조정, 교통·통신기반의 발전 그리고 노조 등의 제도적 환경 재편 등이 취업자들의 통근권 범위를 선택하는 데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듯,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의 경계구획은 역동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Goodman, 1970; Goldner, 1955). 또한 취업(희망)자들이 직장지역의 선택에 있어 통근에 따른 금전적·심리적 비용(소요시간, 이동거리 및 용이성, 심적 부담감 등) 및 이주비용 부담과 일자리 기회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과 평가에 따라 그 통근권의 범위가 다양할 수 있다(최창곤, 2006).

6) 통근강도 또는 연결비율은 153쪽의 수식 참조

이 경우, 취업자들의 인적 자본(예: 숙련, 학력, 경력 등)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자원(예: 직종, 소득, 보유자산 및 주거환경, 통근수단 등)에 따라 취업자의 하위 집단별로 상이한 지역 노동시장의 구역범위가 형성·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Smart, 1974; Duncan, 1956). 그런 만큼, 지역 노동시장의 범위 확정을 위해 통근권(TTWA)의 노동력 자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취업자 인구의 통근행태에 투영되는 공간적 분절구조를 간과·무시하는 문제를 노정하게 되는 것이다(Peck, 1989). 따라서, 지역 노동시장에 거주하는 노동자 집단들 사이에 취업한 일자리의 임금 및 고용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구조적으로 존재하듯이, 이들 집단 사이에는 직장으로서의 통근권에 있어 뚜렷한 차이, 즉 공간적 분절구조가 엄존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취업자의 특성에 따른 지역 노동시장의 통근권 차이에 주목하는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남성·고임금·상위직종의 취업자들이 여성·저임금·하위직종의 취업자 집단에 비해 좋은 주거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누리기 위해 보다 넓은 통근권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Goodman, 1970; Smart, 1974; Duncan, 1956; Casado-Diaz, 2000; Coombes et al., 1988; 이상호, 2008b).⁷⁾ 아울러, 지역 노동시장의 경계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통근권의 노동력 자급비율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연구자의 편의 또는 임의적인 판단에 의거하게 된다는 지적을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Peck, 1989; 이상호, 2008a).

III. 서울시 노동시장 구조 개관

〈표 2〉는 노동부와 서울시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자치구의 인구규모, 사업체 및 종사자 수 그리고 재정 자립도를 살펴본 것이다. 2008년 현재 서울시에는 1,045만여 명이 살고 있는데, 거주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6.5%)이며 이어 노원구(5.9%), 강서구(5.6%), 강남구(5.4%), 관악구(5.3%)가 서울시 전체인구의 5% 이상 거주인구를 보유한 자치구로 나타났다. 반면, 중구(1.3%), 종로구(1.7%) 그리고 금천구(2.5%)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주인구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07년 노동부 사업체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사업체 수는 약 35만 개인데 강남구와 중구에 각각 전체 사업체의 11.2%, 10.5%가 집중되어 이들 두 개 자치구가 서울시의 경제활동 중심지로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서초구(7.1%), 영등포구(5.8%), 종로구(5.7%)도 경제활동의 주요 거점이 되고 있다.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강남구가 전 서울시 종사자의 16.8%를 흡수하고 있으며, 이어 중구(9.7%), 서초구(8.5%), 영등포구(7.5%), 종로구(5.5%), 송파구(5.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강남구를 비롯한 6개 자치구가 43.4%의 취업인구를 포괄하는 중심적 업무지역임을 다시금 확인케 된다. 한편, 자치구의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재정 자립도를 살펴본 결과, 2008년 현재 중구가 86%로 양호한 재정구조를 갖춘 자치구⁸⁾로 드러났으며, 서초구(77.1%), 강남구(75.5%), 종로구(72.2%), 송파구(70.6%), 용산구(70.2%) 역시 70% 이상의 재정

7) Brueckner et al.(2002)은 지역 노동시장의 통근권에 있어 저소득 노동자집단이 도심지의 높은 거주비용 때문에 도시 주변부로 밀려나면서 오히려 고소득 노동자 집단에 비해 통근거리가 보다 장기화된다는 대조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 중구는 2007년, 2009년에도 재정 자립도 1위 자치구로 나타났다.

자립도를 보이는 소위 '부자' 자치구로 나타났다. 반면 노원구(29.1%), 중랑구(30.9%), 관악구(34.2%), 강서구(35.1%) 등이 20~30%의 매우

낮은 재정 자립도를 보여주어 많은 거주인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낙후한 '가난한' 자치구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표 2〉 서울시 자치구 현황-시정통계를 중심으로

	거주인구	비율	사업체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임노동자 수	비율	재정 자립도
전체	10,456,034	100.0	350,321	100.0	3,276,689	100.0	2,883,884	100.0	51.0
종로구	179,754	1.7	19,828	5.7	180,118	5.5	159,010	5.5	72.2
중구	138,811	1.3	36,906	10.5	317,265	9.7	269,463	9.3	86.0
용산구	251,043	2.4	10,925	3.1	86,363	2.6	76,367	2.6	70.2
성동구	322,679	3.1	11,190	3.2	97,503	3.0	86,241	3.0	45.2
광진구	387,254	3.7	10,384	3.0	78,500	2.4	66,384	2.3	44.6
동대문구	381,663	3.7	11,964	3.4	90,585	2.8	75,413	2.6	38.7
중랑구	432,845	4.1	8,405	2.4	53,705	1.6	42,628	1.5	30.9
성북구	481,419	4.6	8,230	2.3	61,769	1.9	51,816	1.8	41.2
강북구	345,754	3.3	6,531	1.9	41,075	1.3	30,468	1.1	36.2
도봉구	376,698	3.6	5,223	1.5	38,012	1.2	31,460	1.1	35.3
노원구	620,808	5.9	9,322	2.7	68,532	2.1	54,470	1.9	29.1
은평구	463,364	4.4	7,197	2.1	46,293	1.4	36,161	1.3	35.0
서대문구	340,731	3.3	7,676	2.2	63,554	1.9	52,936	1.8	45.4
마포구	393,241	3.8	15,256	4.4	150,190	4.6	132,225	4.6	49.6
양천구	507,899	4.9	9,777	2.8	74,552	2.3	61,912	2.1	52.9
강서구	583,545	5.6	11,512	3.3	105,846	3.2	91,540	3.2	35.1
구로구	448,696	4.3	13,856	4.0	120,585	3.7	107,828	3.7	41.4
금천구	265,244	2.5	11,890	3.4	123,677	3.8	114,236	4.0	41.8
영등포구	443,537	4.2	20,326	5.8	246,826	7.5	225,707	7.8	66.9
동작구	410,934	3.9	8,211	2.3	77,926	2.4	66,732	2.3	43.4
관악구	551,873	5.3	10,593	3.0	66,260	2.0	52,075	1.8	34.2
서초구	412,065	3.9	24,999	7.1	279,137	8.5	259,044	9.0	77.1
강남구	565,624	5.4	39,400	11.2	552,041	16.8	516,892	17.9	75.5
송파구	676,580	6.5	20,898	6.0	178,241	5.4	157,839	5.5	70.6
강동구	473,973	4.5	9,822	2.8	78,134	2.4	65,037	2.3	53.7

주: 1. 거주인구-서울시 통계(2008),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노동부, 사업체 노동 통계현황(2007)

2. 재정 자립도는 자체재원의 비중, 행정안전부(2008), '자치구 예산' 자료

〈표 3〉 서울시 자치구의 취업인구 현황 - 복지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거주 인구	취업자 인구	실업인구 (실업률)	자체취업 인구(비율)	유출취업 인구(비율)	유입취업 인구(비율)	취업활동 인구	취업/거주 인구 비율	고용률
합계	7761	3171	265 (7.7)	1255 (39.6)	1916 (60.4)	1471 (46.4)	810	25.5	40.86
종로구	233	79	10(11.2)	40 (50.6)	39 (49.4)	113(143.0)	114	144.3	33.91
중구	230	103	13(11.2)	52 (50.5)	51 (49.5)	131(127.2)	132	128.2	44.78
용산구	187	61	15(19.7)	31 (50.8)	30 (49.2)	40 (65.6)	41	67.2	32.62
성동구	247	105	2 (1.9)	45 (42.9)	60 (57.1)	49 (46.7)	34	32.4	42.51
광진구	300	146	11 (7.0)	46 (31.5)	100 (68.5)	34 (23.3)	-20	-13.7	48.67
동대문구	273	117	9 (7.1)	57 (48.7)	60 (51.5)	87 (74.4)	84	71.8	42.86
중랑구	352	139	9 (6.1)	50 (36.0)	89 (64.0)	12 (8.6)	-27	-19.4	39.49
성북구	335	152	11 (6.7)	64 (42.1)	88 (57.9)	26 (17.1)	2	1.3	45.37
강북구	241	93	14(13.1)	36 (38.7)	57 (61.3)	20 (21.5)	-1	-1.1	38.59
도봉구	277	96	15(13.5)	15 (15.6)	81 (84.4)	16 (16.7)	-50	-52.1	34.66
노원구	419	158	16 (9.2)	71 (44.9)	87 (55.1)	38 (24.1)	22	13.9	37.71
은평구	324	136	16(10.5)	61 (44.9)	75 (55.1)	17 (12.5)	3	2.2	41.98
서대문구	286	112	8 (6.7)	38 (33.9)	74 (66.1)	26 (23.2)	-10	-8.9	39.16
마포구	260	96	6 (5.9)	34 (35.4)	62 (64.6)	74 (77.1)	46	47.9	36.92
양천구	268	96	3 (3.0)	30 (31.3)	66 (68.8)	18 (18.8)	-18	-18.8	35.82
강서구	350	144	5 (3.4)	68 (47.2)	76 (52.8)	35 (24.3)	27	18.8	41.14
구로구	316	131	18(12.1)	40 (30.5)	91 (69.5)	64 (48.9)	13	9.9	41.46
금천구	306	127	12 (8.6)	48 (37.8)	79 (62.2)	38 (29.9)	7	5.5	41.50
영등포구	348	142	8 (5.3)	53 (37.3)	89 (62.7)	108 (76.1)	72	50.7	40.80
동작구	303	108	7 (6.1)	24 (22.2)	84 (77.8)	35 (32.4)	-25	-23.1	35.64
관악구	418	200	15 (7.0)	76 (38.0)	124 (62.0)	24 (12.0)	-24	-12.0	47.85
서초구	301	129	4 (3.0)	50 (38.8)	79 (61.2)	94 (72.9)	65	50.4	42.86
강남구	364	148	9 (5.7)	86 (58.1)	62 (41.9)	298(201.4)	322	217.6	40.66
송파구	461	198	15 (7.0)	79 (39.9)	119 (60.1)	50 (25.3)	10	5.1	42.95
강동구	362	155	14 (8.3)	61 (39.4)	94 (60.6)	24 (15.5)	-9	-5.8	42.82

주: 1. 패널자료에서 취업 거주인구는 3,199명인데, 이 중 통근지 무응답자를 제외한 수가 3,171명

2. 실업률 = 실업인구 / (취업자인구 + 실업인구) × 100

3. 취업활동 인구(일자리 수) = 자체 취업인구 - 유출 취업인구 + 유입 취업인구

4. 취업/거주 인구비율 = 취업활동 인구 / 취업자 인구 × 100

5. 고용률 = 취업인구 / 거주인구 × 100

〈표 3〉은 1차 서울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서울시 자치구의 취업인구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치구별 거주인구를 살펴보면 송파구(461명) · 노원구(419명) · 관악구(418명) · 강남

구(364명) · 강동구(362명) 순으로 나타나, 서울시 인구통계와 다소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⁹⁾ 각 자치구에 거주하는 취업자 인구수에 있어서는 관악구가 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198

9) 이러한 차이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는 서울 복지패널 자료와 당해 실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거주인구와의 격차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표본추출의 문제는 아니다.

명), 노원구(158명), 강동구(155명), 성북구(1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가 7.7%로 나타나는 가운데, 용산구가 무려 19.7%의 매우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봉구(13.5%), 성북구(13.1%), 구로구(12.1%), 종로구와 중구(11.2%), 그리고 은평구(10.5%)가 10%를 넘는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¹⁰⁾ 반면, 양천구와 서초구(3.0%) 그리고 강서구(3.4%)가 3%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인구의 유동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같은 자치구에서 거주하면서 일하는 '자체 취업인구'의 비율(취업자 인구 대비)에 있어서는 서울시 전체가 39.6%에 달하는 가운데, 강남구(58.1%), 용산구(50.8%), 종로구(50.6%), 중구(50.5%)와 같은 '부자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도봉구(15.6%)와 동작구(22.2%)가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외부 유출 취업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가 60.4%의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자치구별 비교에 있어 자체 취업인구의 비율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치구의 유입 취업인구비율(취업자 대비)에 있어서는 서울시 전체가 46.4% 수준을 보이는 것에 비해 강남구(201.4%), 종로구(143.0%), 중구(127.2%)로 현저하게 높은 반면, 8.6%의 중랑구를 비롯하여 관악구(12.0%), 은평구(12.5%), 강동구(15.5%), 도봉구(16.7%), 성북구(17.1%), 양천구(18.8%) 등과 같이 '가난한 자치구'들에서 10%대의 낮은 수준이 확인된다.

자치구별로 취업자 인구 대비 취업활동 인구

(= 자체 취업인구 - 유출 취업인구 + 유입 취업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강남구(217.6%), 종로구(144.3%), 중구(128.2%)는 '부자 자치구'답게 28.2%~117.6% 취업인구의 유입초과를 보여 경제활동 중심지로서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반면, 도봉구(-52.1%), 동작구(-23.1%), 중랑구(-19.4%), 양천구(-18.8%), 광진구(-13.7%), 관악구(-12.0%), 서대문구(-8.9%), 강동구(-5.8%), 강북구(-1.1%)의 경우에는 유출 취업인구가 자체 및 유입 취업인구를 초과하는 일자리 빈곤의 자치구들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¹¹⁾

〈표 4〉에서는 서울시 취업인구의 통근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취업인구 유출입 비율(Home-Work Ratio, HWR), 노동공급 자급비율(Employment Self-containment rate: ESC), 노동수요 자급비율(Housing Self-containment rate, HSC), 일자리율(Job Ratio, JR)을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취업인구 유출입 비율(HWR)을 살펴보면 자치구간 격차가 매우 크다. 159.5%의 HWR를 보이는 강남구를 비롯한 8개 자치구(종로구 93.7%, 중구 77.7%, 동대문구 23.1%, 용산구 16.4%, 영등포구 13.4%, 마포구 12.5%, 서초구 11.6%)가 Laan and Schalke(2001)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5% 이상의 HWR를 보여 유출 취업인구보다 유입 취업인구가 현저히 많은 업무중심 지역(working areas)으로 나타난다. 반면, -67.7%의 HWR의 도봉구와 남은 17개 자치구 모두 -5% 미만의 HWR를 보여 유입 취업인구 대비 유출 취업인구가 현저히 많은 거주 중심 지역(living areas)로 분류되고 있다.

10)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로 나타난 2009년 서울시의 실업률이 4.5%이므로, 서울 복지패널 조사에서의 실업자 추계가 상당히 과대 표집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1) 서울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취업인구의 유출입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비서울지역으로의 유출 취업인구가 445명으로 나타나는 반면 비서울지역으로부터 유입 취업인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자료상의 한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서울지역으로부터의 유입 취업인구를 고려할 수 없는 만큼 각 자치구의 취업활동 인구 비율은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하겠다. 그럼에도 서울시 자치구들간의 유출입 통근구조를 밝히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서울시 취업인구의 통근 현황 - 자치구를 중심으로

	취업인구 유출입 비율 (HWR)	노동공급 자급비율 (ESC)	노동수요 자급비율 (HSC)	일자리 비율 (JR)
종로구	93.7	50.6	26.1	289.7
중구	77.7	50.5	28.4	256.9
용산구	16.4	50.8	43.7	133.3
성동구	-10.5	42.9	47.9	81.7
광진구	-45.2	31.5	57.5	34.0
동대문구	23.1	48.7	39.6	145.0
중랑구	-55.4	36.0	80.6	13.5
성북구	-40.8	42.1	71.1	29.5
강북구	-39.8	38.7	64.3	35.1
도봉구	-67.7	15.6	48.4	19.8
노원구	-31.0	44.9	65.1	43.7
은평구	-42.6	44.9	78.2	22.7
서대문구	-42.9	33.9	59.4	35.1
마포구	12.5	35.4	31.5	119.4
양천구	-50.0	31.3	62.5	27.3
강서구	-28.5	47.2	66.0	46.1
구로구	-20.6	30.5	38.5	70.3
금천구	-32.3	37.8	55.8	48.1
영등포구	13.4	37.3	32.9	121.3
동작구	-45.4	22.2	40.7	41.7
관악구	-50.0	38.0	76.0	19.4
서초구	11.6	38.8	34.7	119.0
강남구	159.5	58.1	22.4	480.6
송파구	-34.8	39.9	61.2	42.0
강동구	-45.2	39.4	71.8	25.5

주: 1. 취업인구 유출입 비율 (HWR) = $[(Ir - Or) / Er] \times 100$

(Ir- 유입 취업자 수, Or- 유출 취업자 수, Er-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수)

2. 노동수요 자급비율 (HSC) = $(Er - Or) / [(Er - Or) + Ir] \times 100$

3. 노동공급 자급비율 (ESC) = $(Er - Or) / Er \times 100$

4. 일자리 비율 (Job Ratio) = $Ir / Or \times 100$

이처럼, 서울시 자치구의 취업인구 유출입 통근 현황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업무지역과 거주지역으로 양분되고 있음을 확인케 된다.

거주지역에서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확보·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지표인 노동공

급 자급비율(ESC)이 50%를 넘는 자치구는 강남구(58.1%), 용산구(50.8%), 종로구(50.6%), 중구(50.5%)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19개 자치구의 노동공급 자급비율은 30~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동작구(22.2%)와 도봉구(15.6%)는

〈표 5〉 서울시 취업인구의 통근현황-취업자 및 임금 노동자의 속성을 중심으로

	취업 거주인구	취업인구 유출입 비율 (HWR)	노동공급 자급비율 (ESC)	노동수요 자급비율 (HSC)	일자리 비율 (JR)
전체(취업자)	3171	-14.0	39.6	46.0	76.8
임금노동	2360	-15.4	32.4	38.3	77.2
비임금노동	808	-9.9	60.6	67.3	74.8
남	1494	-19.3	26.0	32.2	74.0
여	866	-8.8	43.4	47.6	84.5
정규직	1488	-16.7	23.4	28.1	78.2
비정규직	869	-13.2	47.9	55.2	74.6
제조업	279	-23.3	28.3	36.9	67.5
건설업	174	-31.6	28.2	41.2	56.0
유통서비스	523	-13.6	26.6	30.8	81.5
개인서비스	290	-7.9	49.0	53.2	84.5
사업서비스	491	-10.4	24.9	27.7	86.2
공공서비스	489	-14.9	39.9	46.9	75.2
전문관리직	684	-15.9	26.5	31.5	78.3
판매서비스	405	-6.9	39.0	41.9	88.7
사무직	577	-16.5	20.1	24.1	79.4
생산기능직	242	-21.9	43.8	56.1	61.0
단순노무직	336	-13.1	50.6	58.2	73.5

주: 1. 통근관행의 주요 산출공식은 〈표 4〉와 동일

2. 업종과 직종을 제외한 부문별 합이 전체합과 불일치하는 이유는 결측값 때문임. 업종에서는 농림어업, 직종에서는 농림어업 숙련자 및 군인을 제외

매우 낮은 노동공급 자급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해당 자치구의 필요 노동력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인 노동수요 자급비율(HSC)에서는 중랑구(80.6%)를 비롯하여 은평구(78.2%), 관악구(76.0%), 강동구(71.8%), 성북구(71.1%)가 70%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강남구(22.4%), 종로구(26.1%), 중구(28.4%)는 20%대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지역 노동시장의 독립구역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노동수요

자급비율과 노동공급 자급비율의 70~75%를 적용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들 중에서 독자적인 지역 노동시장을 구성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근권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¹²⁾ 아울러, 각 자치구별 유출 취업인구 대비 유입 취업인구의 상대적 비율을 살펴보는 일자리 비율(Job Ratio, JR)에 있어서는 강남구(480.6%)를 비롯한 8개 자치구(종로구 289.7%, 중구 256.9%, 동대문구 145.0%, 용산구 133.3%, 영등포구 121.3%, 마포구 119.4%, 서초구 119.0%)가

12) 박진희(2005)의 연구에서도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이용한 노동수급 자급비율의 분석을 통해 서울시 통근권에 대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지역 노동시장의 독자적 구획범위 존재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서구의 선행연구에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취업인구규모에 따라 70%(20,000명 이상) 또는 75%(3,500명 이하)의 노동 수급비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Casado-Díaz, 2000).

100%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한편, 남은 17개 자치구는 100% 미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5〉에서는 서울시 전체 취업인구를 대상으로 취업자 및 임금 노동자의 주요 속성에 따라 통근관행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는 바, 통근행태의 지표들에 있어 무엇보다 하위 집단 범주들 간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집단 범주별로 HWR 수준을 비교하고자 할 경우, 취업자 전체의 HWR이 ‘-14.0%’인 것은 445명에 달하는 비서울지역으로의 유출 취업인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취업자 및 임금 노동자의 하위 집단별로 HWR을 비교해보면, 임금 노동자·남성·정규직·건설/제조업·생산기능직/사무직/전문관리직이 비임금 노동자·여성·비정규직·개인서비스/사업서비스·판매서비스/단순노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낮은 HWR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유입 취업인구 대비 유출 취업인구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는 일자리 비율(JR)에서는 임금 노동자·여성·정규직·사업서비스/개인서비스·판매서비스가 다른 집단범주들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을 드러내 대조적인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노동공급 자급비율(ESC)과 노동 수요 자급비율(HSC)은 각각 서울시 전체 취업자의 39.6%와 46.0%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임금노동<비임금노동, 남성<여성, 정규직<비정규직, 제조/건설<개인 및 공공서비스, 전문관리직/판매서비스<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으로 일정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취업자 및 임금 노동자의 통근권을 중심으로 지역 노동시장의 구획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이들의 주요 속성범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것을 예상케 된다.

IV. 서울시 지역 노동시장의 공간적 분절구조에 관한 판별 분석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의 통근권(TTWA)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서울시 지역 노동시장의 내부 구조를 판독해보기로 한다. 통근권 측정에서는 분석 대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노동수급 자급비율을 산출하여 통상적으로 70~75% 수준(대도시 70%, 그 외 지역 75%)에 달하는 경우 단일한 지역 노동시장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인접 행정구역들 간의 통근강도(commuting intensity) 또는 연결비율(link rate)을 계산하여 높은 통근강도의 행정구역들을 하나의 지역 노동시장권으로 통합하는 계산절차를 되풀이하게 된다. 이러한 측정방법이 임의적일 수 있고 단일 통근권 내의 이질성을 간과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행정구역들을 통합하여 지역 노동시장의 실재 범위로 재구성하는 데에 표준적인 절차로 활용해오고 있다.

통근권의 산출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거주지와 업무지로 구성된 통근행렬 자료를 구축한다. (a)와 (b)지역에 거주하면서 역내에 통근하는 경우(T_{aa} , T_{bb}), (a)에서 (b)로 통근하는

		통근지			
		a	b	...	
거주지	a	T_{aa}	T_{ab}	...	$\sum_k T_{ak}$
	b	T_{ba}	T_{bb}	...	$\sum_k T_{bk}$
		
		$\sum_k T_{ka}$	$\sum_k T_{kb}$		

* T_{aa} : a지역의 통근자 수, T_{bb} : b지역의 통근자 수
 $\sum_k T_{ak}$: a지역의 거주-취업자 수, $\sum_k T_{bk}$: b지역의 취업자 수

$\sum_k T_{ka}$: a지역의 통근자 수, $\sum_k T_{kb}$: b지역의 통근자 수

경우(T_{ab}), (b)에서 (a)로 통근하는 경우(T_{ba})로 구분할 수 있다. 이 행렬을 토대로 구할 수 있는 두 지역 간 통근강도(commuting intensity, link rate)의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Coombes et al., 1986; Casado-Diaz, 2000; 이상호, 2008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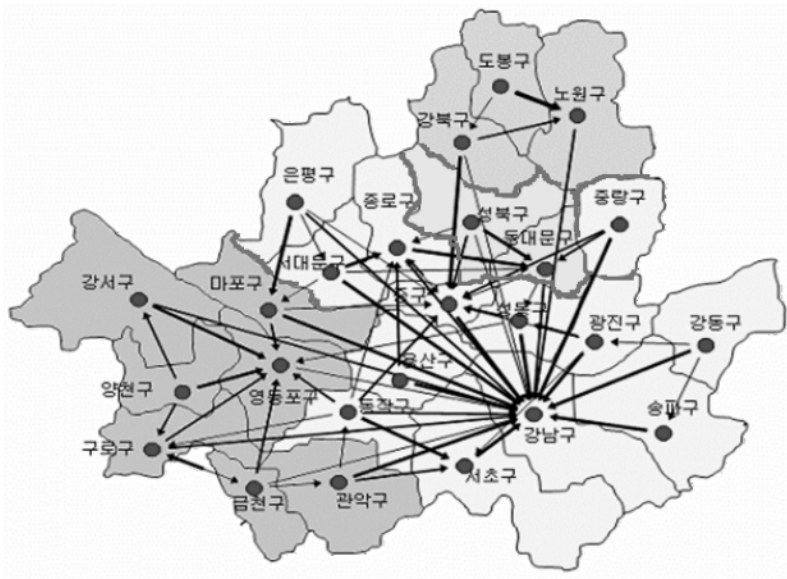
$$\frac{(T_{ab})^2}{(\sum_k T_{ak})(\sum_k T_{kb})} + \frac{(T_{ba})^2}{(\sum_k T_{bk})(\sum_k T_{ka})}$$

단위 행정구역들의 노동수급 자급비율이 일정 수준의 조건을 만족치 못하면 산출된 통근강도에 따라 노동력 유입의 중심구역에 대해 인접 행정구역을 반복적으로 통합시키고 더 이상 통합되지 않는 수준의 수렴지점을 도출한다. 통근강도가 가장 높은 두 지역부터 통합시키는 과정을 반복함에 있어 노동수급 자급비율과 인구규모의 소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노동시장 구획을 조정·확정한다.

지역 노동시장의 세부구역을 산출하는 이상의 절차에 따라 기존 연구들에서 광역도시권에 대해 적용하는 70%의 노동수급 자급비율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서울시 자치구들이 하나의 노동시장으로 통합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세부 구역을 판별하기 위해 그 기준을 40%에 이르기까지 조정하여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전체 취업자(50~60%)와 하위집단별(55~60%) 자급비율을 조정·적용하였다.¹³⁾

〈그림 1〉은 서울시의 자치구들이 4개의 하위 노동시장 구역(labor market sub-areas)을 구성하고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지역에 대한 구역통합의 분석을 실시한 이상호(2008b)와 하위 노동시장 구역 수(4개)에서는 동일하나, 그 구역에 포괄되는 자치구들의



〈그림 1〉 서울시 전체 취업자의 통근권역

13) Scott(1985)이 지적하듯이 취업인구 규모와 일자리 수가 매우 큰 광역대도시권(metropolitan areas)에서 취업인구의 통근 유동성(commuting fluidity)이 크게 늘어나 통합된 단일구역의 지역 노동시장을 구성하게 된다는 기존 연구의 논의에서 볼 때 자명하다.

구성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위 노동시장 구역 내부에서 자치구들 간의 취업인구의 유출입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여 해당 자치구 취업인구의 5% 이상 통근율을 기준으로 삼아 그 유출입의 방향을 추가로 표시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강남구와 중구 그리고 종로구가 경제활동 중심지가 되어 13개 자치구들의 취업인구들이 상호 유출입하는 하나의 거대한 하위 노동시장구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영등포구가 중심되어 7개의 자치구들을 포괄하는 제2의 하위 노동시장구역을 구성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노원·강북·도봉구의 3개 자치구가 상호 통근하는 제3의 구역과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성북구가 통합되는 제4의 구역이 소규모의 하위 노동시장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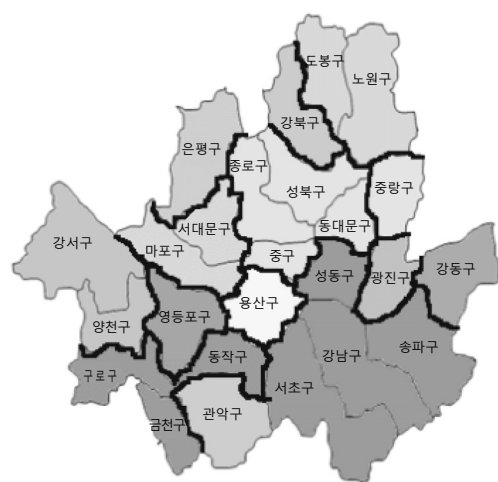
<그림 2>와 <표 6>에서는 취업자 및 임금 노동

자의 하위 집단별로 자체 통근율 55~60%를 적용하여 산출한 하위 지역 노동시장의 구획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과 <그림 2-2>에서는 임금 노동자와 비임금 노동자의 통근권을 구분하여 보여주는 것인데, 임금 노동자가 2개의 지역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데 비해 비임금 노동자는 14개의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와 고용주의 경우 거주지와 업무지가 상대적으로 동일 역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2-3>~<그림 2-7>은 임금 노동자의 하위 집단별로 지역 노동시장권을 구획화한 것인데 흥미롭게도 남성, 정규직, 고학력, 전문관리직의 고임금직종은 서울시 전체를 묶는 하나의 거대한 통근권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여성은 4개, 비정규직은 9개, 저학력은 8개, 저임금 직종은 2개의 하위 노동시장구역으로 세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서구의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듯이, 서울시에서도



<2-1> 임금 근로자의 통근권



<2-2> 비임금 근로자의 통근권

<그림 2> 취업자 및 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따른 지역 노동시장 구획

14) 취업자를 비롯하여 하위집단의 통근권 분석을 통해 일관되게 노원구·강북구·도봉구가 하나의 하위 지역 노동시장 권역을 이루며 취업자들의 폐쇄적인 유동경향을 보이는 점이 매우 특기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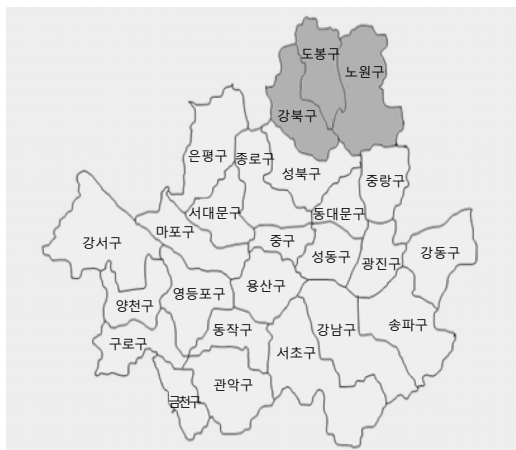
〈2-3〉 남성 · 정규직 · 고학력 · 고임금직(관리전문직) 통근권



〈2-4〉 여성 근로자의 통근권



〈2-5〉 비정규 근로자의 통근권



〈2-6〉 저임금 직종 근로자의 통근권



〈2-7〉 저학력 근로자의 통근권

〈그림 2〉 취업자 및 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따른 지역 노동시장 구획(계속)

핵심부문의 노동자 집단과 주변부문의 노동자 집단 간에 통근거리 격차라는 공간적 분절구조가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서울시의 통근권에 있어 노동시장의 분절구조가 공간적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점은 통근비용과 이동수단, 구직정보 습득 기회구조와 직업탐색 네트워크

차이, 생활비 격차와 주거환경-자녀교육여건 차이 등에 의해 비롯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요컨대, 서울시는 양질의 일자리와 그런 일자리 획득의 인적자본을 가진 취업자에게는 단일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취약 노동자집단에게는 취업자 유형, 학력, 성별, 고용형태, 직종에 따라

〈표 6〉 서울시 취업인구의 통근현황-취업자 및 임금 노동자의 속성을 중심으로

집단형태	하위 노동 시장구역			
전체 취업자	(1) 강남구, 중구, 종로구, 서초구, 송파구, 서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광진구, 강동구, 중랑구, 은평구			
	(2)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3)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4) 동대문구, 성북구			
임금 노동	(1) 강남구, 중구, 종로구, 서초구, 송파구, 서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광진구, 강동구, 중랑구, 은평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성북구			
	(2)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비임금 노동	(1)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성동구		(2)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3)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4) 노원구, 도봉구	
	(5) 서대문구, 마포구		(6) 강서구, 양천구	
	(7) 강북구	(8) 용산구	(9) 관악구	(10) 영등포구
	(11) 은평구	(12) 중랑구	(13) 광진구	(14) 강동구
남	서울 전체			
여	(1) 강남구, 중구, 종로구, 서초구, 송파구, 서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광진구, 강동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관악구, 양천구			
	(2)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3) 영등포구, 강서구			
	(4) 은평구			
정규직	서울 전체			
비정규직	(1)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성동구, 중구, 광진구, 중랑구			
	(2)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3)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4)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5) 동대문구, 성북구	
	(6) 강동구		(7) 용산구	(8) 양천구
			(9) 강서구	
고임금 직종 (전문관리직)	서울시 전체			
저임금 직종 (생산기능/노무직)	(1) 강남구, 중구, 종로구, 서초구, 송파구, 서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광진구, 강동구, 중랑구, 은평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성북구			
	(2)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고학력 (대졸 이상)	서울시 전체			
저학력 (고졸 이하)	(1)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중구, 중랑구, 강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2)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3)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4) 종로구, 서대문구		(5) 마포구, 은평구	
	(6) 서초구, 광진구		(7) 양천구	
			(8) 강서구	

상이하게 세분화되는 분절적 지역 노동시장의 공간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V. 서울시 통근권의 영향요인 분석

4장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업자와 임금 노동자들의 통근권을 주요 속성범주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이 장에서는 통근권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취업자·임금 노동자의 특성범주들을 통제한 가운데 이들의 통근권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개별 특성요인을 검출하기로 한다. <표 7>은 회귀 분석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의 기술통계이다. 취업자와 임금 노동자의 통근거리를 대리 측정하는 종속변수는 '거주지·통근지 관계'를 4개의 통근권 범주로 유형화하였다. 같은 자치구에서 거주하면서 일하는 경우 '1', 인접 자치구로 통근하는 경우 '2', 비인접 자치구로 통근하는 경우 '3', 그리고 서울시를 벗어나는 지역으로 통근하는 경우 '4'의 값을 부여하였다. 이같이 통근권의 유형화는 실제 통근거리와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으나, 복지패널 조사에

<표 7> 변수설명 및 기술통계

	변수설명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거주 자치구 통근	종속변수, 기준범주=거주 자치구 통근	3,195	.393	.488
인접구 통근		3,195	.193	.395
비인접구 통근		3,195	.275	.447
비서울지역 통근		3,195	.139	.346
기혼 여성	기준범주=미혼 남성	3,194	.252	.434
기혼 남성		3,194	.545	.498
미혼 여성		3,194	.098	.298
미혼 남성		3,194	.105	.306
연령	회귀모형, 연령제곱 포함	3,195	43.89	12.476
중졸 이하	기준범주=고졸	3,195	.134	.340
고졸		3,195	.315	.465
전문대 졸		3,195	.086	.281
대졸 이상		3,195	.465	.499
월평균 생활비	가구단위 (만원), 로그값	3,189	5.288	.600
임금 노동자	임금 노동자=1, 비임금 노동자=0	3,195	.745	.436
정규직	정규직=1, 비정규직=0	2,378	.632	.482
근속 개월	로그값	3,175	3.787	1.342
시간당 소득	단위 천원, 로그값	3,118	.390	.852
제조업	업종 기준범주 금융, 부동산임대, 과학기술, 사업지원 도소매, 운수, 통신/출판 전기가스, 하수처리, 공공행정, 교육, 보건, 국제기관 음식/숙박, 여가산업, 기타 개인서비스	3,038	.117	.321
건설업		3,038	.075	.264
사업서비스		3,038	.200	.400
유통서비스		3,038	.278	.448
공공서비스		3,038	.179	.383
개인서비스		3,038	.151	.358
전문관리직	임원/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종사자: 기준범주 판매직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기능직, 장치조작/조립 관련 종사자 단순노무직 및 농어업 종사자	3,195	.266	.442
판매서비스직		3,195	.206	.404
사무직		3,195	.234	.424
생산기능직		3,195	.130	.336
단순노무직		3,195	.116	.320

〈표 7〉 변수설명 및 기술통계(계속)

	변수설명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영세사업장	사업체 고용규모 1-29명	3,195	.655	.476
소규모 사업장	사업체 고용규모 30-99명	3,195	.148	.355
중규모 사업장	사업체 고용규모 100-499명: 기준범주	3,195	.104	.305
대규모 사업장	사업체 고용규모 500명 이상	3,195	.089	.284
종로구	거주지 기준범주=종로구	3,195	.025	.156
중구		3,195	.032	.177
용산구		3,195	.019	.137
성동구		3,195	.033	.178
광진구		3,195	.046	.210
동대문구		3,195	.039	.192
중랑구		3,195	.044	.205
성북구		3,195	.047	.212
강북구		3,195	.029	.168
도봉구		3,195	.030	.171
노원구		3,195	.050	.217
은평구		3,195	.043	.202
서대문구		3,195	.035	.184
마포구		3,195	.030	.172
양천구		3,195	.031	.173
강서구		3,195	.047	.211
구로구		3,195	.041	.198
금천구		3,195	.040	.195
영등포구		3,195	.044	.206
동작구		3,195	.034	.182
관악구		3,195	.063	.243
서초구		3,195	.040	.197
강남구		3,195	.047	.212
송파구		3,195	.062	.241
강동구		3,195	.049	.216

취업자의 구체적인 통근거리를 측정하는 설문은 포함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통근거리의 차이를 대리 측정하는 방식으로 가공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취업자의 인적 속성변수로는 성별 혼인관계의 4개 범주(기혼 남성, 기혼 여성, 미혼 남성, 미혼 여성), 연령 및 연령제곱, 학력, 그리고 가구 월평균 생활비를 포함하였고, 일자리 속성변수로는 취업자유형, 고용형태, 근속기간, 시간당 임금, 업종, 직종, 사업체 규모를 포함하였다. 이에 더하여 자치구별 통근권 차이를 감안하여 거주 자치구를 지역

특성변수로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다항범주의 종속변수를 고려하여 다항로지트회귀(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분석을 실시하되, 분석표집을 취업자 집단과 임금 노동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표 8〉에서는 취업자 집단의 통근권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의 분석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양(+)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인의 범주에 해당될 경우 자체 자치구에서 벗어나 인접 자치구·비인접 자치구·비서울지역으로 통근할 가능성이

〈표 8〉 취업자 통근권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항로짓회귀 분석 결과

거주구 통근 vs.	인접구 통근		비인접구 통근		비서울지역 통근	
	B 추정값(표준편차)	Exp.(B)	B 추정값(표준편차)	Exp.(B)	B 추정값(표준편차)	Exp.(B)
절편	-3.410 (.986)***		-3.883 (.933)***		-5.511(1.181)***	
기혼 여성	-.268 (.240)	.765	-.713 (.218)***	.490	-1.105 (.278)***	.331
기혼 남성	.251 (.226)	1.285	.089 (.200)	1.093	-.048 (.247)	.953
미혼 여성	.356 (.244)	1.427	-.154 (.224)	.857	-.502 (.310)	.605
연령	.009 (.035)	1.009	-.015 (.032)	.985	.110 (.043)**	1.117
연령제곱	.000 (.000)	1.000	.000 (.000)	1.000	-.001 (.000)*	.999
중졸 이하	-.350 (.219)	.704	-.051 (.202)	.950	-.105 (.233)	.900
전문대 졸	.001 (.228)	1.001	.722 (.199)***	2.058	.554 (.250)*	1.740
대졸 이상	.478 (.151)***	1.613	.749 (.144)***	2.115	.388 (.175)*	1.474
월평균 생활비	.309 (.118)**	1.362	.568 (.112)***	1.765	.481 (.141)***	1.617
임금 노동자	.943 (.145)***	2.569	1.411 (.144)***	4.101	1.075 (.169)***	2.930
근속 개월	.070 (.047)	1.073	.042 (.044)	1.043	-.098 (.051)†	.906
시간당 소득	.022 (.075)	1.022	-.044 (.072)	.957	.075 (.083)	1.078
건설업	-.722 (.309)*	.486	-.269 (.248)	.764	-.310 (.256)	.733
사업서비스	.412 (.225)†	1.510	.204 (.203)	1.226	-.901 (.240)***	.406
유통서비스	-.052 (.210)	.949	-.231 (.191)	.794	-.772 (.213)***	.462
공공서비스	-.449 (.227)*	.638	-1.149 (.211)***	.317	-1.217 (.234)***	.296
개인서비스	-.422 (.238)†	.656	-.616 (.220)**	.540	-1.277 (.268)***	.279
판매서비스직	.340 (.164)*	1.405	-.213 (.164)	.808	.065 (.182)	1.067
사무직	.125 (.173)	1.133	-.213 (.164)	.808	-.642 (.216)**	.526
생산기능직	-.646 (.229)**	.524	-.912 (.206)***	.402	-.754 (.227)***	.470
단순노무직	-.497 (.243)*	.608	-.531 (.219)*	.588	-.511 (.259)*	.600
중구	-.198 (.458)	.820	-.069 (.437)	.933	-1.337 (.667)*	.263
용산구	.279 (.479)	1.322	-.480 (.531)	.619	-.381 (.642)	.683
성동구	.534 (.422)	1.706	-1.033 (.496)*	.356	-.922 (.606)	.398
광진구	.934 (.412)*	2.544	.380 (.422)	1.462	.358 (.501)	1.430
동대문구	.049 (.443)	1.050	.150 (.428)	1.162	-.396 (.552)	.673
중랑구	-.197 (.459)	.821	.791 (.404)*	2.205	.389 (.486)	1.476
성북구	.338 (.414)	1.403	.298 (.407)	1.347	-.547 (.536)	.579
강북구	.057 (.484)	1.058	.691 (.441)	1.997	.163 (.543)	1.177
도봉구	1.482 (.489)**	4.403	1.061 (.502)*	2.890	2.002 (.527)***	7.404
노원구	-1.336 (.497)**	.263	-.093 (.404)	.911	.161 (.470)	1.174
은평구	.218 (.435)	1.244	.450 (.416)	1.569	.150 (.513)	1.162
서대문구	.209 (.436)	1.232	.082 (.432)	1.085	.054 (.518)	1.055
마포구	-.383 (.511)	.682	.832 (.436)†	2.297	.018 (.566)	1.018
양천구	.536 (.454)	1.710	.130 (.459)	1.139	.410 (.521)	1.507
강서구	-.249 (.423)	.779	-.069 (.405)	.933	-.390 (.498)	.677

〈표 8〉 취업자 통근권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항로짓회귀 분석 결과(계속)

거주구 통근 vs.	인접구 통근		비인접구 통근		비서울지역 통근	
	B 추정값(표준편차)	Exp.(B)	B 추정값(표준편차)	Exp.(B)	B 추정값(표준편차)	Exp.(B)
구로구	.162 (.434)	1.176	.201 (.423)	1.222	.681 (.476)	1.976
금천구	-.092 (.446)	.912	.483 (.410)	1.621	.367 (.485)	1.444
영등포구	-.417 (.431)	.659	-.143 (.408)	.867	.024 (.479)	1.024
동작구	.703 (.461)	2.019	.820 (.448)†	2.271	.475 (.541)	1.607
관악구	.326 (.393)	1.385	.129 (.389)	1.138	-.249 (.481)	.780
서초구	-.069 (.428)	.933	-.131 (.421)	.877	-.143 (.515)	.867
강남구	-1.338 (.450)**	.262	-1.196 (.421)**	.303	-.609 (.482)	.544
송파구	.131 (.396)	1.140	-.085 (.391)	.919	-.364 (.478)	.695
강동구	-.562 (.445)	.570	.272 (.400)	1.313	.135 (.476)	1.145
-2 LL	6768.213***					
Chi-Square	993.961					
Nagelkerke R ²	.309					
사례 수	2,946					

주: † p<.1, * p<.05, ** p<.01, *** p<.001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의 회귀계수는 그 정반대로 상대적으로 자치구로 통근할 확률이 높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분석 결과를 차례로 살펴보면, 우선 대졸 이상의 고학력, 임금 노동자 그리고 ‘월평균 생활비’가 자체 자치구에 벗어나 다른 자치구나 비서울지역으로 통근하는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생산 기능직이나 단순노무직의 하위직종 취업자들이 거주 자치구로 자체 통근하는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논의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서울시 지역 노동시장에서도 높은 인적자본과 상위직종이나 상류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위치하는 핵심 부문의 취업자들이 낮은 인적자본·하위직종 및 하위계층의 주변부문 취업자에 비해 현저하게 통근권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임금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주되게 구성된 비임금 노동자들에 비해 탈거주지의 통근패턴을 보

이는 것으로 고용형태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성별·결혼관계에서는 기혼 여성이 비서울지역이나 비인접구로 통근하기보다는 거주 자치구에서 일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논의하듯이 가사·육아 등의 부담으로 그리고 구직방식의 제한성으로 인해 통근범위가 가장 좁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업종부문에 있어서는 제조업에 비해 공공서비스의 종사자들이 거주 자치구에서 일하는 확률이 뚜렷하게 높은 가운데, 개인서비스·유통서비스·건설업 및 사업 서비스에서도 거주 자치구로의 통근확률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자치구를 살펴보면, 도봉구의 거주 취업자들이 탈거주지 통근의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와 중구 그리고 노원구의 거주 취업자들이 자체 자치구에서 일하는 확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진구 거주 취업자들의 경우에는 인접 자치구로 통근하는

〈표 9〉 임금 노동자 통근권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항로짓회귀 분석 결과

거주구 통근 vs.	인접구 통근		비인접구 통근		비서울지역 통근	
	B 추정값(표준편차)	Exp.(B)	B 추정값(표준편차)	Exp.(B)	B 추정값(표준편차)	Exp.(B)
절편	-1.378 (.1123)		-1.605 (.1056)			
기혼 여성	-.206 (.265)	.814	-.592 (.243)*	.553	-1.105 (.278)***	.331
기혼 남성	.354 (.250)	1.424	.165 (.224)	1.179	-.048 (.247)	.953
미혼 여성	.339 (.261)	1.404	-.124 (.241)	.884	-.502 (.310)	.605
연령	.009 (.035)	1.003	-.040 (.036)	.961	.085 (.047)†	.961
연령제곱	.000 (.000)	1.000	.000 (.000)	1.000	-.001 (.000)	.999
중졸 이하	-.181 (.262)	.834	.065 (.237)	1.067	.092 (.269)	1.096
전문대 졸	.034 (.258)	1.034	.759 (.228)***	2.137	.573 (.289)*	1.773
대졸 이상	.413 (.182)*	1.511	.617 (.171)***	1.854	.375 (.209)†	1.456
월평균 생활비	.230 (.138)†	1.259	.561 (.130)***	1.752	.370 (.163)*	1.447
정규직	.436 (.163)**	1.547	.430 (.151)**	1.537	.315 (.189)†	1.370
근속 개월	.014 (.057)	1.014	-.011 (.041)	.989	-.116 (.061)†	.891
시간당 소득	.076 (.092)	1.079	-.037 (.087)	.964	.126 (.100)	1.134
건설업	-.611 (.366)†	.543	.122 (.289)	1.130	.039 (.295)	1.040
사업서비스	.473 (.257)†	1.604	.378 (.234)	1.459	-.812 (.274)**	.444
유통서비스	.188 (.249)	1.206	.190 (.226)	1.209	-.487 (.251)	.615
공공서비스	-.443 (.255)†	.642	-1.119 (.238)***	.327	-1.171 (.260)***	.310
개인서비스	-.189 (.280)	.828	-.402 (.261)	.669	-1.126 (.320)***	.324
판매서비스직	.217 (.183)	1.242	.116 (.169)	1.123	.048 (.200)	1.049
사무직	.192 (.209)	1.212	-.159 (.199)	.853	-.703 (.273)**	.495
생산기능직	-.575 (.278)*	.563	-.823 (.247)***	.439	-.523 (.266)*	.593
단순노무직	-.301 (.274)*	.740	-.237 (.247)	.789	-.404 (.294)	.667
영세사업장	-.587 (.207)**	.556	-.749 (.198)***	.473	-.737 (.232)**	.478
소규모 사업장	-.261 (.235)	.770	-.051 (.221)	.950	-.157 (.256)	.855
대규모 사업장	-.205 (.277)	.814	.279 (.255)	1.322	-.044 (.296)	.957
중구	-.240 (.551)	.786	.074 (.526)	1.077	-1.072 (.732)	.342
용산구	.341 (.589)	1.406	-.341 (.634)	.711	-.175 (.760)	.839
성동구	-.069 (.518)	.934	-1.479 (.588)*	.228	-1.194 (.702)†	.303
광진구	.715 (.501)	2.045	.347 (.506)	1.415	.340 (.594)	1.405
동대문구	-.117 (.530)	.890	-.037 (.515)	.964	-.291 (.624)	.748
중랑구	-.482 (.550)	.618	.617 (.490)	1.853	.236 (.577)	1.266
성북구	.065 (.504)	1.067	.124 (.492)	1.132	-.465 (.610)	.628
강북구	.237 (.576)	1.267	.925 (.536)†	2.521	.462 (.636)	1.587
도봉구	1.198 (.585)*	3.314	1.055 (.588)†	2.872	1.811 (.625)**	6.117
노원구	-1.491 (.563)**	.225	-.391 (.487)	.676	-.315 (.568)	.730
은평구	.020 (.523)	1.020	.114 (.507)	1.121	.056 (.603)	1.058

〈표 9〉 임금 노동자 통근권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항로짓회귀 분석 결과(계속)

거주구 통근 vs.	인접구 통근		비인접구 통근		비서울지역 통근	
	B 추정값 (표준편차)	Exp.(B)	B 추정값 (표준편차)	Exp.(B)	B 추정값 (표준편차)	Exp.(B)
서대문구	.084 (.539)	1.088	.073 (.529)	1.076	-.145 (.641)	.865
마포구	-.846 (.657)	.429	.587 (.549)	1.799	-.293 (.699)	.746
양천구	-.199 (.572)	.820	-.482 (.561)	.617	.156 (.613)	1.169
강서구	-.098 (.510)	.906	.086 (.494)	1.090	-.332 (.598)	.718
구로구	.074 (.521)	1.077	.180 (.509)	1.197	.622 (.571)	1.862
금천구	-.320 (.546)	.726	.315 (.504)	1.370	.214 (.586)	1.239
영등포구	-1.103 (.533)*	.332	-.413 (.489)	.661	-.214 (.568)	.807
동작구	.480 (.547)	1.616	.437 (.538)	1.549	.393 (.628)	1.482
관악구	.167 (.485)	1.182	.143 (.476)	1.154	-.105 (.566)	.900
서초구	-.484 (.520)	.616	-.744 (.514)	.475	-.382 (.606)	.682
강남구	-1.730 (.557)**	.177	-1.606 (.519)**	.201	-.621 (.570)	.537
송파구	-.215 (.486)	.807	-.202 (.474)	.817	-.455 (.566)	.635
강동구	-.925 (.528)†	.396	.107 (.477)	1.113	-.072 (.560)	.931
-2 LL	5211.135 ***					
Chi-Square	788.916					
Nagelkerke R ²	.319					
사례 수	2,238					

주: † p<.1, * p<.05, ** p<.01, *** p<.001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외 자치구들의 거주 취업자들은 통근권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 않는다.

〈표 9〉에서는 임금 노동자의 통근권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 노동자 통근권의 영향요인들은 취업자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우선, 대졸 이상 및 전문대의 고학력자가 고졸 학력자보다, 그리고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그리고 가구의 생활비가 많을수록 거주 자치구를 벗어나는 통근관행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반면, 기혼여성의 경우 비서울지역과 비인접 자치구로 통근하는 확률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며, 생산기능직을 비롯한 사무직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임금 노동

자들 역시 자체 자치구에 통근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2-6〉에서는 생산·노무직에 종사하는 저임금 직종 근로자들의 서울 시내 통근권이 두 개로 분할되어 상대적으로 넓은 권역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인적·일자리 속성을 통제할 경우(전문관리직의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자체 자치구에 취업·통근하는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업종부문에 있어서도 취업자와 대체로 유사하게 제조업에 비해 공공서비스 및 개인·사업 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임금 노동자들이 거주 자치구에서 일하는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가운데, 개인서비스·유통서비스·건설업 및 사업서비스에서도 거주 자치구로의 통근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고용규모에

있어서는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임금 노동자들이 거주자치구에서 일하는 확률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거주 자치구의 영향을 살펴보면, 도봉구에 거주하는 임금 노동자들이 탈거주지 통근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강남구 및 노원구·영등포구·성동구에 거주하는 임금 노동자들은 자체 자치구에서 일하는 확률이 대체로 높다.

VI. 맺음말

이 연구는 서울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판독하는 탐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통근권의 판별절차에 따라 서울시 취업자들의 통근 패턴을 분석해보면 통상 노동수급 자급비율의 대도시 70%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하나의 통합된 광역 노동시장으로 나타나지만, 서울시 지역 노동시장의 내부구조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다소 느슨한 50~60%의 자급기준을 적용할 경우 4개 하위 통근 권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강남구·중구·종로구의 경제활동 중심지를 둘러싼 광범한 통근권역이 서울시 노동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7개의 자치구를 묶고 있는 하위 통근권역이 1/4 이상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흥미롭게도, 노원·강북·도봉의 3개 자치구는 전체 취업자 및 하위 집단들에서 일관되게 단일한 폐쇄적인 하위 통근권을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 취업자들의 통근 패턴을 통해 일정하게 공간적 구획이 나뉘지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취업자의 주요 특성별로 범주화하여 통근권 구획을 산출한 결과, 성별·고용형태·학력·직종

에 따라 공간적 이동범위에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취업자의 주요 특성에 따른 통근권의 공간적 편차는 회귀 분석에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는 바,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인적자본과 사회경제적 지위(예: 직종과 가구생활비) 그리고 고용형태(임금노동과 정규직)가 취업자들의 통근범위와 노동시장의 공간적 구획을 결정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시 취업여성, 특히 기혼 여성의 통근권도 가사·육아부담과 직업탐색의 제약 등으로 인해 근거리 범위의 노동시장구획에 머물러 있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업종과 사업체 규모에 있어서는 제조업과 3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종사자들이 서비스부문 및 건설업 그리고 중대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짧은 거리의 통근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서울시 통근권에 있어 핵심부문과 주변부문의 취업자들 사이 분명한 공간적인 격차구조를 드러내고 있어 Goodman(1970)이 지적하듯이 노동시장 분절의 핵심 구획선(principal divisions)으로서 지역공간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고용정책의 최일선 집행단위가 지역이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지역고용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적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취업 애로계층의 통근권은 대개 거주 자치구로 좁게 설정됨으로써, 직업훈련 강화, 일자리 탐색 등의 취업지원 정책은 거주 자치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인접구로의 통근도 무시할 수 없고, 취업 애로계층의 제한된 통근권은 경제·사회적 지위와 밀접하므로 좁은 통근권 유지 방안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거주지와 업무지 경계를 뚜렷하게 구별하기보다 인접지역고용센터 간에 고용지원 프로그램들을 조정·

협력하여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고용정책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므로 최근 일자리 개발을 놓고 지자체 간의 마찰이 유발되기도 하지만, 본 분석에 따르면 업무지 친화적 자치구와 거주지 친화적 자치구가 구별되고 있어 그러한 갈등조건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정책은 자치구 간의 균등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거주중심지와 업무중심지로서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지역구의 장점은 유지하되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 지역 노동시장의 통근권 구획 내부의 분절구조를 드러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인근 수도권지역으로부터 상당 규모의 취업자 인구가 유·출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수도권으로 확대된 지역 노동시장의 통근권 구획과 분절구조를 밝혀내는 것은 추후 연구과제로 한다. 또한 서울시 지역 노동시장 내부에 존재하는 분절구조를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통근권 역 및 거주지·업무지별로 취업자의 고용 질과 임금보상 차이를 다양하게 분석하는 것도 제기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상철, 1999, “지역 노동시장 관점에서의 한국 도시지역 특성화와 실업에 대한 맥락적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 61~72.
- 김종환, 2006, “부산지역의 고용불일치 특징과 일자리창출 정책분석”, 『산업노동연구』, 12(2): 63~201.
- 김혜원, 2007, “한국의 지역 노동시장 조정의 동학”, 『노동정책연구』, 7(3): 1~33.
- 박진희, 2005, “지역 노동시장은 존재하는가?”, 『노동리뷰』, 10: 60~70.
- 이상호, 2008a, “지역 노동시장권(LLMAs)의 측정과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8(4): 147~182.
- _____, 2008b, “지역 노동시장의 측정 및 임금격차 분석”, 제6회 산업·직업별 고용 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발표논문.
- _____, 2008c, “한국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동학에 관한 세 가지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원호, 2002,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지역 노동시장의 임금 결정과정과 소득격차”,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2): 187~207.
- 이효수·남병탁, 2006, “대구, 경북지역 노동시장구조의 특징”, 『경제연구』, 24(2): 107~134.
- 전병유, 2006, “우리나라의 지역간 고용격차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68: 205~235.
- 전병유·이인재, 2006, “지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22(2): 115~136.
- 정인수·전병유·임상훈, 2003, 『지역 노동시장: 실증분석과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최창곤, 2006,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연구”, 『경제연구』, 24(4): 67~98.
- 홍성우, 2008, “광주·전남 노동시장 고용의 질 측정과 향상방안”, 『지역개발연구』, 40(2): 17~36.
- Brueckner, Jan., Jacques-Francois, Thisse., and Yves, Zenou., 2002, “Local Labor Markets, Job Matching, and Urban Location”,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3(1): 155~171.
- Casado-Diaz, J., 2000, “Local Labour Market Areas in Spain: a Case Study”, *Regional Studies*, 34(9): 843~856.
- Clark, Gordon., 1986, “Regional Development and Policy: the Geography of Employmen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0: 416~426.
- Coombes, M., Green, A., and Openshaw, S., 1986, “An Efficient Algorithm to Generate Official Statistical Reporting Areas: the Case of the 1984 Travel-to-Work Areas Revision in Britain”, *Journal of the*

-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37: 943~953.
- Coombes, M., Green, A., and Owen, D., 1988, "Substantive Issues in the Definition of 'Localities': Evidence from Sub-group Local Labour Markets Areas in the West Midlands", *Regional Studies*, 22(4): 303~318.
- Duncan, Beverly., 1956, "Factors in Work-Residence Separation: Wage and Salary Workers, Chicago 1951",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6): 48~56.
- Fischer, M. and Nijkamp, P.(eds.), 1987, *Regional Labor Markets*, North Holland: Elsevier.
- Goldner, William., 1955, "Spatial and Locational Aspects of Metropolitan Labor Markets", *American Economic Review*, 45(1): 113~128.
- Goodman, J. F. B., 1970, "The Definition and Analysis of Local Labour Markets: Some Empirical Problem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8: 179~180.
- Hanson, Susan. and Pratt, Geraldine., 1992, "Dynamic Dependence: a Geographic Investigation of Local Labor Markets", *Economic Geography*, 68(4): 373~405.
- Kerr, Clark., 1954, "The Balkanization of Labor Markets", Bakke, E. W.(ed.), *Labor Mobility and Economic Opportunit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Laan, Lambert van der. and Schalke, Richard., 2001, "Reality versus policy: the Delineation and Testing of Local Labour Market and Spatial Policy Area", *European Planning Studies*, 9(2): 201~221.
- Martin, Ron., 2003, "Local Labor Markets: Their Nature, Performance, and Regulations", Gordon, Clark., Feldman, Maryann. and Gertler, Meric(eds.),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rr, John., 2007, "Spatial Definitions of the City: Four Perspectives", *Urban Studies*, 44(2): 381~392.
- Peck, Jamie., 1989, "Reconceptualizing the Local Labour Market: Space, Segmentation, and the Stat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3(1): 42~61.
- Phelps Brown, E. H., 1962, *The Economics of Labor*,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Scott, A., 1985, "Location Processes, Urbanization, and Territorial Development", *Environment and Planning A*, 17(3): 479~501.
- Smart, M. W., 1974, "Local Labor Market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3): 1257~1278.
- Vance Jr, James., 1960, "Labor-shed, Employment Field, and Dynamic Analysis in Urban Geography", *Economic Geography*, 36(3): 189~220.
- <http://laborstat.molab.go.kr/>(노동부, 노동통계, "사업체 노동통계현황", 2007년도)
- <http://stat.seoul.go.kr/>(서울특별시 통계)
- <http://www.mopas.go.kr/>(행정안전부, "자치구 예산", 2008년도)

원 고 접 수 일 : 2010년 2월 26일
1차심사완료일 : 2010년 4월 2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0년 5월 6일